







## 선언문

2025 교육도시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Educating City)에 저는 국제교육도시협의회(IAEC)의 회원도시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IAEC는 교육을 사회 변혁, 포용, 그리고 조화로운 공존의 촉매로 삼는 약 500여 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도시에서 아동의 참여(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Educating City)"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교육도시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경청받으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적극적인** 시민임을 인식하는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도시 헌장(Chart of Educating Cities)' 제8조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동체 생활의 관리와 개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도시는 필요한 제도적 통로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동의 참여를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헌장 제20조는 교육도시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의 가치와** 실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존중, 관용, 참여, 책임, 공적 삶에 대한 관심, 공동선을 향한 헌신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도시에서 아동은 단순한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체이자 미래의 창조자입니다.

그들의 참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도시의 삶에 **실질적이고 변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제안은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시정(市政)을 풍요롭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나 지역사회 등 가까운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국제교육도시협의회의 활발한 회원도시로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약속합니다.

- 아동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지역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하는 공간과 도구를 확대합니다.
- 사회적 약자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관점이 존중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참여 채널을 보장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기술을 기르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제공합니다.
-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여 더욱 결속력 있고 포용적이며,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놀이 활동을 통해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참여를 장려합니다.
- 부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학교, 가정 및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협력하여 아동기부터의 복지, 평등, 시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도시를 역동적인 학습 환경으로 발전시킵니다.

2025년 교육도시의 날은 우리가 교육과 아동의 권리 증진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다지는 날이며, 지금까지의 발전을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교육도시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배우며,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시는 이 뜻깊은 기념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참여적인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025년 국제 교육도시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